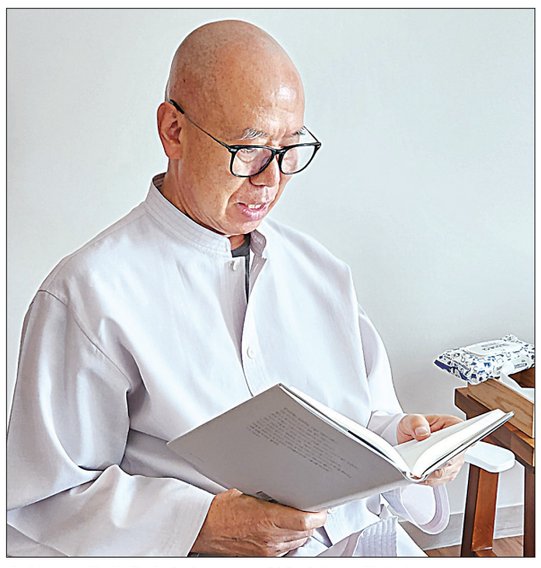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청주 관음사 회주 함현 스님

“참선·염불은 ‘不二’… 지향하는 곳은 같다”

12면에 이어



함현 스님은 책을 확인하며 본지와의 인터뷰를 이어갔다.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는 스님들의 모습.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

“나는 이제부터 새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선행 공덕을 살뜰히 키우면서 나의 이웃들을 끝없이 살려 나가는 일이 살림입니다. 나의 공성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정토의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선방의 상징이자 또 다른 이름으로 존경받던 함현 스님이 2022년 돌연 염불행자의 길을 선언했다. 수많은 대중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스님은 한발 더 나아갔다.

“비구 함현은 엎드려 발원하옵니다. 이 목숨을 마칠 때 궁극의 평안과 안락의 문이 연꽃 피듯 저절로 열려지이다. 그 문 앞에서 성중과 더불어 이 몸 맞아 정토로 인도해주실 아미타부처님께 미묘한 빛과 향기로운 소리로 찬탄하고 공양하고 예배 올리옵나니 바라옵건대, 천상·인간·아수라 세계의 항하사 중생들이 봄비 기다리는 설렘으로 아미타불께 귀의해 여덟 가지 고통 벗어나 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함현 스님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왜’일까?

“한참 참선을 열심히 할 때, 봉암사에 함께 살던 수경 스님과 연관 스님이 염불 수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연관 스님이 ‘참선도 해봤고 남방에 가서 수행도 해봤으니, 이제 노년에는 셋이 모여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두들기며 염불이나 합시다’라고 해 속으로 저는 ‘이 노장들이 미쳤나’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참선하기 쉽지 않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행의 방법을 바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60여 일간 일본 시코쿠 순례를 하면서 염불 수행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안거 때 도솔선원에서 폐관 정진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 8km를 걷고, 절 300배와 염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함현 스님이 염불 수행을 확신한 계기는 연관 스님의 입적이었다. 연관 스님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을 찾았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스스로 곡기와 물을 끊어 2022년 6월 본래 자연으로 돌아갔다.

“연관 스님을 보내드릴 때 동료 선후배 스님들이 함께 염불을 해줬습니다. 다소 불편해 보이던 연관 스님의 얼굴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맑게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이번 생의 인연을 마무리하셨어요. 연관 스님을 보내드리면서 염불 수행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정토법문은 그 실천이 쉽고 일상적이기에 이 시대의 삶들에게 크나큰 위안과 은혜로운 빛을 주는 최적의 법문”이라며 “물러남 없는 신심(信心)으로 앉으나 서나 오직 아미타불만을 염(念)하면 생각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어, 붉은 지혜의 해가 솟아올라 보배 나무와 보배 연못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고 말한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내세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선(禪) 수행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에서 정토신앙은 오랜 세월 타력신앙 혹은 하근기 수행법으로 치부돼왔다. 그렇다고 수행자들이 염불을 터부시한 것은 아니다.

중국 영명 연수 선사는 “참선만 하고 정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열에 아홉이 길을 잃나니 중음의 경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리라”고 경계하며 “참선도 하고 염불수행도 했다면 뿔까지 달린 호랑이와 같나니 현세에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내세에는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고 강조했다.

운서 주굉 스님은 “한결같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염불만 하면 그가 지은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코 구품연화대에 왕생할 것”이라고 설했다.

또 한국불교의 새벽을 열었던 원효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열 번만 하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근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도 “온갖 인연 쉬고서 다만 아미타불을 염하니, 곧 그것이 여래선이며 그것이 바로 조사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 하셨는가
중생 근기 따라서 法을 설하신 것
불자들도 근기 맞춰 수행 하면 돼
‘쉼 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 당부
출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참선과 염불이 다른 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한 번 뒤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향하는 곳은 같아요.”

다른 듯 같은 길, 참선과 염불

스님은 참선과 염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참선과 염불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 스님은 먼저 참선법에 대해 〈선관책진〉에서 독봉계선 선사가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그대가 무(無)자를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안 공부의 목숨을 ‘어째서 개에 불성이 없는가’에 두어라. 그대가 ‘만법귀일’을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안 공부의 목숨을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두어라. 그대가 염불로 참구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 공부의 목숨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에 두어라. 그리하여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를 지켜보며 깊고 깊은 의심의 바다 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라. 그대가 만약 화두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그 공안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분명하게 들어서 처음과 끝을 하나로 꿰뚫어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절로 잡혀 몰록 의정이 맺힐 것이니, 이 의정이 끊이지 않도록 간절히 마음을 써라.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발을 들고 몸을 뒤쳐 허공에서 한 바탕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이니 이때에 다시 와서 산승의 방망이를 맞도록 하라.”

‘행주좌와’의 여여한 염불수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첫째, ‘행(行)’은 아미타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러 간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에게 연꽃 공양을 올리러 간다고 그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둘째, ‘주(住)’는 아미타부처님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에게 기대어 서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셋째, ‘좌(坐)’는 극락정토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극락정토에 핀 연꽃 위에 앉아 있다고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넷째, ‘와(臥)’는 아미타부처님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관상한다. 이 수행은 아미타부처님의 무릎을 베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법이다. 좀 더 명확한 설명이 이어졌다.

“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아미타경〉을 있는 그대로 독송합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원전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불교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대기설법을 하셨느냐? 중생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도 각자의 근기에 따라 참선이나 염불 등의 수행을 하면 됩니다. 활로를 구한다고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실천할 때 이뤄진다 했습니다. 바른 실천이란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통찰하기입니다. 이는 모든 불문수행의 요체로 정토법문도 이를 여읜 특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거침이 없었다. ‘수행’에 대한 당부도 구체적이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꽃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과 가식으로 꽃을 피워서는 곤란합니다. 수행자들이 왜 출가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래의 출가정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무상한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쉼 없이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울림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출재가 모두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뭔가 모를 여운이 가득했다. 도솔선원을 나서며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극락 간다네〉 중 ‘함현 자계’의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유철주** /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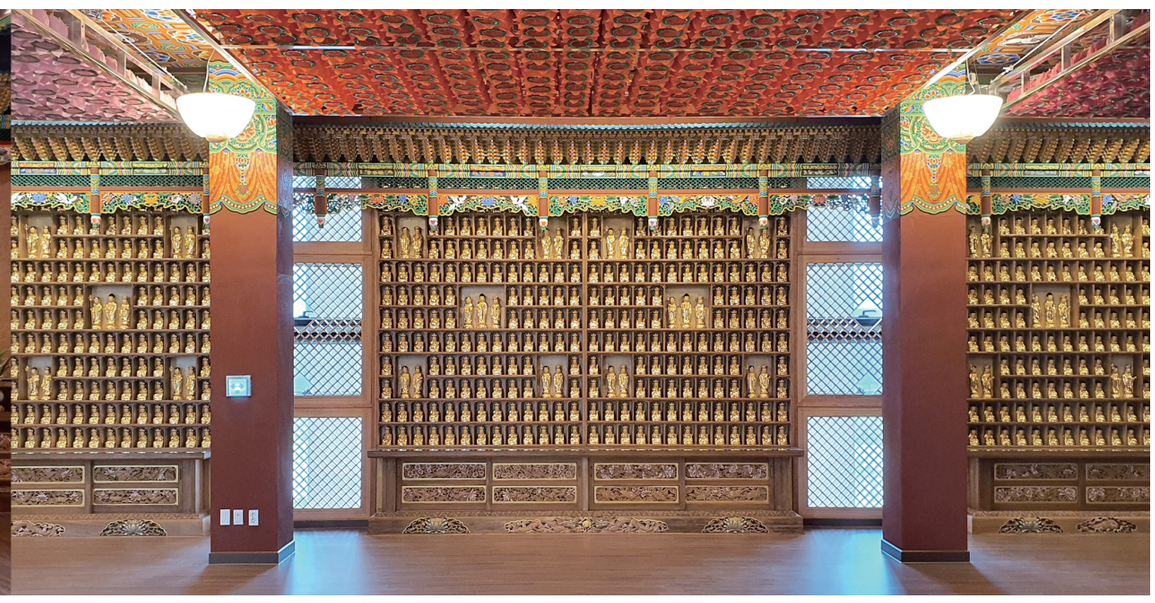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광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내부불사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